

### [서식3]

## [독도동아리]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하누리
<p>※ 독도체험(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을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독도 인지도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li><li>2. 동북아 역사 재단 방문</li><li>3. 독도 신문 1,2,3,4호 발간</li><li>4. 독도 티 주문</li><li>5. 독도 신문 5호 발간</li><li>6. 독도 팸플렛 제작</li><li>7. 명동에서 팸플렛을 외국인에게 배부</li><li>8. 독도 신문 6호 발간</li></ol> <p>❖ 목적</p> <p>한국을 외국인들, 혹은 한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 ‘하누리’에서는 최근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한국지리 시간에 본 영상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일본과 한국을 보며 정말 우리의 땅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우리의 땅, 독도를 알리는 것이 하누리의 독도 홍보활동의 큰 목적이다.</p> <p>❖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p>학교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양보해가며 시간을 내어 홍보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독도 신문’과 ‘독도 서도의 주요지형’제작에 있어서 서로 시간이 안 맞았지만 서로 배려하여 시간을 맞추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진심으로 활동에 임했다. 신문, 홍보지 배부를 할 때도 덥고 피곤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임했다.</p> <p>❖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p> <p>가장 특색 있는 활동은 ‘명동 홍보활동’을 위한 과정과 실제 홍보를 한 것이다.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 한글로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사실을 작성하고 우리들도 직접 4개 국어로 번역한 후 각 교과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았다. 홍보지를 인쇄 후에 각자 독도홍보티를 입고 명동으로 갔다. 명동으로 가서 무더위로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지를 배부했다. 명동이라 그런지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배부하기 보다는 외국인들에게 홍보지를 배부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다. 명동에서 과거에 한국홍보를 담당했던 분께서도 우리의 홍보지를 받으시고 조언을 해주셨다.</p>	

❖ 주요 성과

독도에 대해 몰랐던, 관심 없던 학생들도 우리의 홍보활동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고 전보다 독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게 되었다. 외국인들도 홍보지를 받고 관심을 보였다.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1학년 김서진 - 그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명백한 사실만을 알아왔고 그 지식까지 밖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독도활동을 하면서 독도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 또 왜 꼭 지켜야하는 우리나라의 유산인지 등 모르고 살았던 독도의 모습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뜻깊었고 독도라는 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2학년 박정빈 -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나 또한 많이 배웠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 기회로 독도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한국의 홍보와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매우 기뻐다. 나의 미래 진로인 광고, 홍보 분야에서도 이 독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후에 독도가 여전히 인식이 저조하다면 그때도 지금을 떠올리면서 독도를 수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2학년 윤승희 - 일본과 끊임없는 독도 영토 논쟁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나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마음을 먹고 대회에 출마했다. 독도의 대한 사전 조사를 하며 기존에 알지 못했던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깊게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수집하고 깨달은 정보들을 각자 진로에 맞게 신문, 팸플렛 형태로 제작해 학급친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전달하는 활동을 하면서 독도를 우리가 몸소 홍보를 했구나! 라는 성취감이 온몸에 느껴졌다.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지만 더 확고하게 "우리 영토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작지만 뿌듯한 독도 홍보활동을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어서 뜻깊은 활동이었다.

2학년 박성은 - 현재에도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잊고 있다. '독도'라는 주제로 학습동아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 또한 신서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개개인의 진로와 연결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활동이었다.

이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동아리부원들 모두 몰랐던 독도의 상식을 많이 얻어가게 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후에 다시 독도를 홍보하거나 수호할 일이 생긴다면 다른 누구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중 학교에서 설문 조사하며 학생들이 독도에 관련된 역사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누리’는 교내 독도 역사 퀴즈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다시 독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독도 홍보활동 마무리가 아닌 시작으로 중요하지만 조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부분들을 밝혀 홍보할 것이다.

후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기에 앞서 이 의미 있는 독도 홍보활동을 한 것을 떠올리며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고, 또 그런 발전이 대한민국의 안정된 사회에 기여하게 할 것이다.